

## 경제

# 광주 LED 세계 표준화 '시동'

광기술원 개발 LED램프 국제 규격 채택

지역 기업에 인증 수수료 58%까지 인하

광주가 개발을 주도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기술 규격의 세계화를 위한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세계 시장 개척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광산업체들의 기술력 향상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3일 "LED 조명의 국가 표준(KS)이 국제 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표준 초안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표준은 지난 6월 우리나라가 제안한 할로겐 대체용(건버터 외장형) LED램프 국가 표준으로, 향후 2~3년간 7명의 각국 전문가

들의 표준화 작업을 거쳐 국제 표준으로 최종 채택된다.

이번에 채택된 표준안의 KS 규격 제정은 광주 광산업의 연구·개발 허브인 한국광기술원이 주도했다. 이에 따라 지역 LED업체들이 핵심 장비와 기술력을 갖춘 한국광기술원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면 국제 표준 채택으로 수요가 늘게 될 세계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표준원은 또 한국광기술원 등이 개발한 LED 등기구 표준 등 5종의

KS 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추가 제안해놓고 있다.

한편, KS 인증에 들어가는 비싼 수수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지역 LED 조명제조업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본보 10월 13일자 8면)에 따라 LED 조명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도 다양하게 추진된다.

기술표준원은 이날 언론보도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LED 시험기관 협의회'가 조명제품의 KS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이달부터 21%~58%까지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올해 '경제위기 극복 기업지원 대책'으로 시행 중인 시험 수수료 20% 감면혜택을 종소기 업에 한해 1년 더 주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남영전구 광주공장을

제외하면 광주 104개 LED업체(LED 조명전문업체 51개) 가운데 KS 인증을 받았거나 신청한 곳이 전혀 없다. 시급히 기술력을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차치 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광주시가 LED 산업 등 광(光)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데도 정작 기술력 향상이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지역 광산업 관계자는 "광산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국제 표준 채택을 계기로 광주시와 한국광기술원, 한국광산업진흥회가 협약한 광산업체들의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기 기자 dok2000@kwangju.co.kr〉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촉구 전국상인대회에 참가한 전국 상인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설허가제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SSM 등록제, 허가제로 바꿔라"

### 광주 등 중소상인들 상경 시위

광주 등 전국의 중소상인들이 3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허가제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촉구 전국 상인대회'에는 전국 중소상인 및 시민사회단체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해 국회에 유통산업발전법 개

정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하고, SSM 및 대형마트의 개설 허가제와 카드수 수료 인하 등을 촉구했다.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회원 50여 명도 이날 상경에 앞서 광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에 대기업 유통업체 점포들이 계속해서 입점하면서,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가 초토화되고 있다"며 "이를 막으려면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는 "사업조정제도라는 미비한 제도로 대기업 유통업체의 진출을 막는 것은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국회가 지역중소상인들을 살리는 법안을 통시켜 국민의 자립적 생활기반을 지켜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외환보유액 사상최대

### 2,641억 달러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8개월 연속 급증하면서 사상 최대치에 유행했다. 현재 추세가 유지되면 이달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말 외환보유액은 2천641억 달러로 달러로 9월 말보다 99억4천만 달러 증가했다.

사상 최대치였던 작년 3월 말의 2천642억5천만 달러 이후 1년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월중 증가액은 지난 5월 142억9천만 달러와 2004년 11월 142억1천만 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지난 3월 이후 8개월 간 증가액은 626억 5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한은은 외환보유액 증가가 운용수익과 유로화 및 영국 파운드화 등의 강세에 따른 미 달러 환산액의 급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외국환평형기금의 외화유동성 공급자금 중 만기대로 15억 달러가 회수되고 국민연금의 통화스와프 만기로분은 8억 달러가 상환된 것도 외환보유액 증가에 일조했으며, 외환당국의 달러화 매수 개입 역시 한몫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촉구 전국상인대회에 참가한 전국 상인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설허가제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촉구 전국상인대회에 참가한 전국 상인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설허가제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촉구 전국상인대회에 참가한 전국 상인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설허가제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촉구 전국상인대회에 참가한 전국 상인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설허가제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촉구 전국상인대회에 참가한 전국 상인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설허가제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촉구 전국상인대회에 참가한 전국 상인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설허가제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촉구 전국상인대회에 참가한 전국 상인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설허가제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촉구 전국상인대회에 참가한 전국 상인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설허가제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촉구 전국상인대회에 참가한 전국 상인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설허가제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촉구 전국상인대회에 참가한 전국 상인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설허가제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촉구 전국상인대회에 참가한 전국 상인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설허가제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촉구 전국상인대회에 참가한 전국 상인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설허가제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촉구 전국상인대회에 참가한 전국 상인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설허가제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촉구 전국상인대회에 참가한 전국 상인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설허가제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촉구 전국상인대회에 참가한 전국 상인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설허가제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촉구 전국상인대회에 참가한 전국 상인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설허가제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촉구 전국상인대회에 참가한 전국 상인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설허가제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촉구 전국상인대회에 참가한 전국 상인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설허가제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촉구 전국상인대회에 참가한 전국 상인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설허가제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촉구 전국상인대회에 참가한 전국 상인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설허가제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촉구 전국상인대회에 참가한 전국 상인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설허가제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촉구 전국상인대회에 참가한 전국 상인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설허가제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촉구 전국상인대회에 참가한 전국 상인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설허가제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촉구 전국상인대회에 참가한 전국 상인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설허가제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촉구 전국상인대회에 참가한 전국 상인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설허가제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촉구 전국상인대회에 참가한 전국 상인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설허가제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촉구 전국상인대회에 참가한 전국 상인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설허가제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촉구 전국상인대회에 참가한 전국 상인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설허가제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촉구 전국상인대회에 참가한 전국 상인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설허가제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촉구 전국상인대회에 참가한 전국 상인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설허가제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촉구 전국상인대회에 참가한 전국 상인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설허가제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촉구 전국상인대회에 참가한 전국 상인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설허가제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촉구 전국상인대회에 참가한 전국 상인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설허가제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촉구 전국상인대회에 참가한 전국 상인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설허가제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촉구 전국상인대회에 참가한 전국 상인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설허가제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촉구 전국상인대회에 참가한 전국 상인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설허가제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촉구 전국상인대회에 참가한 전국 상인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설허가제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촉구 전국상인대회에 참가한 전국 상인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설허가제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촉구 전국상인대회에 참가한 전국 상인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설허가제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